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4 평화재단 2014 활동보고서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백년을 위한 출발

Contents

I. 인사말	4
II. 평화재단 소개	6
III. 2014 사업별 활동보고	8
1. 평화연구원	10
1) 전문가포럼	12
2) 심포지엄	18
3) 현안진단	22
4) 전문가모임	24
2. 평화교육원	26
1) 평화리더십아카데미	28
2) 여성리더십아카데미	32
3) 청년리더십아카데미	36
4) 열린아카데미	42
5) 기획강좌	48
- 정치아카데미	48
- 새로운백년아카데미	50
3. 평화운동	52
1)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	54
- 청년학교	54
- 현장탐방활동	58
- 해외탐방활동	60
- 청년콜로키움	62
2) 평화통일 네트워크	64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64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66
3)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68
4. 평화재단 10주년 기념 행사	70
1) 10주년 특별 기획대담	72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	
2)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밤	76
3) 재단의 약속	78
IV. 재정보고	80
V. 함께하는 사람들	81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4

평화재단 2014 활동보고서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백년을 위한 출발**

펴낸 날 ————— 2015년 4월 1일 | Published on April 1, 2015

펴낸 곳 ————— 재단법인 평화재단 | Published by The Peace Foundation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62(137-878)

62, Seochojungang-ro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137-878)

연락처 ————— T 82-2-581-0581 | F 82-2-581-4077 | E-mail staff@peacefoundation.or.kr

Home Page ————— www.peacefoundation.or.kr

2014 평화재단 연례보고서를 펴내며

2014년은 어느 때 보다도 달리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과연 성장·발전을 성공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계속 영유하며 복지사회·통일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세월호 참사는 물신주의와 고속 성장의 신화에 젖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줬고,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는 한국 정치의 낙후한 현주소를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계속된 낙마와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도층의 도덕성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창립 후 지난 10여년을 한결같이, 국가의 외교 안보 현안에 집중하여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남북한이 공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통일 과정에서 남한 사회가 주도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한 사회가 한국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이룩해 온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은 분명 통일 과정에서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지침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사건·사고들은 한국 사회가 이대로는 통일을 주도할 능력도, 도덕성도, 그러한 전망도 없지 않느냐 하는 뼈아픈 자기 반성과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일대박'은 통일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때 가능하지만 현재 남한 사회처럼 갈등, 대립, 불신, 차별이 만연한 상태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를 보다 살기좋은,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보다 새로워지고 그것이 통일 사회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평화재단은 평화통일의 길에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2014년 한 해, 한국 사회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기존의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서서 새로 담론을 만들어 확산하고 의제를 개발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름부터 9주 연속으로 진행된 창립 10주년 기념 기획 대담은 그런 문제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울러 평화연구원에서는 새 담론을 연구하는 가운데 상하반기 심포지엄에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주제를 던져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각성된 지도자들의 양성과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아카데미와 기획강좌에서도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남남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통일·통합의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문제와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진단하였고, 나아가 팔레스타인 분쟁과 에볼라 확산 등 국제적 인권 이슈까지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는 통일된 나라가 구현해야 할 가치를 남한 사회에서부터 우선 실현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0년을 지내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통일 담론을 생산하고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 온 것이 평화재단의 성과라면 이제 새롭게 바뀐 국제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2014년의 아픔을 흘려보내고 그 상처를 치유해내면서, 한국 사회가 보다 새로워지고 그것이 통일 사회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평화재단은 평화통일의 길에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4월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물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전회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이 세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평화연구원



- 1) 전문가포럼
- 2) 심포지엄
- 3) 현안진단
- 4) 전문가모임



2 평화교육원



- 1) 평화리더십아카데미
- 2) 여성리더십아카데미
- 3) 청년리더십아카데미
- 4) 열린아카데미
- 5) 기획강좌



- 정치아카데미
- 새로운백년아카데미

3 평화운동



- 1)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
 - 청년학교
 - 현장탐방활동
 - 해외탐방활동
 - 청년콜로키움

2) 평화통일 네트워크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3)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4 평화재단 10주년 기념 행사



- 1) 10주년 특별 기획대담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
- 2)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 3) 재단의 약속

5 재정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평화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면서 2014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및 통일이 모처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일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갖가지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미국과 중국 등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언급들이 이어지며 국내외적으로 통일 문제가 담론화 되면서 대박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또한 확대됐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현안진단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통일대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2014년도 첫 전문가포럼을 통해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은 북한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심포지엄에서는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환경적 적합성을 판단하듯이, 이제는 통일 사회를 염두에 두고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이제껏 한 번도 제기된 적 없던 논의로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구체화, 전문화 작업을 통해 발전시킬 과제가 함께 주어졌다.

하반기에도 통일 문제는 주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교황 방한, 8.15 광복절, 추석, 인천 아시안게임 등 한반도 문제와 연관 있는 일정들을 관계 개선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통일 대박'과 '통준위'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게다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지고 작전통제권이 무기 연기되는 등 '통일대박'의 꿈이 멀어지는

듯 보였다. 국외적으로도 일본 아베정권이 계속해서 극우 행보를 보이고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현안진단을 통해 각 현상들을 짚고 여러 가지 해법과 돌파구를 제시하기도 했고, 전문가포럼에서는 '역사로부터의 교훈 : 청일전쟁 120주년, 현재 우리의 외교 안보는',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와 북일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다루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를 결산하는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기념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라는 주제를 통해 이제는 통일 패러다임의 구축이 절실함을 역설하면서 다시 희망의 끈을 이어나갔다.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해가려는 움직임이 무엇보다,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2014년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희망을 본 것과 동시에, 그 바람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함께 느낀 한 해였다. 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진 지금, 2015년에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각 사업들을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재편하고 발전시켜 보다 더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14년 한 해 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기여를 보여준 전문가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전문가포럼

제65차 전문가포럼 | 2014년 2월 18일 |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치면서 통일 담론이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북한 역시 상호비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발표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여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다.

김정은 정권 3년 차에 접어드는 2014년 초, 북한 내부 정세와 대내외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김정은 집권 3년차 남북관계 개선 강도가 어떻게 구현될지 전망하고자 ‘김정은 3년,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 **주 제** ——— **김정은 3년,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사 회** ———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 **발표 1** ——— 2014, 북한 정세 및 대내외 정책 전망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표 2** ——— 최근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 관계 정상화의 기운은 싹 트는가
성기영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토론 1**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토론 2**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제66차 전문가포럼 | 2014년 3월 19일 |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낮은 일이 아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북한인권문제는 남남갈등의 주요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 사회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직접 당사자로서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향상과 한반도의 통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았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접근법과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 **주 제** ——— **통일을 위한 준비 :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사 회** ———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표 1**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이슈 부상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윤여상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소장)
- **발표 2** ——— 한국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 성찰과 대안적 방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토론 1** ———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토론 2** ———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
- **토론 3** ———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제67차 전문가포럼 | 2014년 4월 15일 |

3월 18일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과 오랫동안 강대국 간 세력다툼의 장이 되어 온 역사 등 많은 면에서 닮아있어 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크림반도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67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크림반도 사건을 짚어보면서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을 견주어 비교하고 대비책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현명한 통일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뜻을 모았다.



- 주 제 — 유라시아의 지각 충돌, 크림반도의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사 회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1 — 크림반도의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박정호(한국외대 우크라이니아어과 교수)
- 발표 2 —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 비교 및 대비책
우평균(한양대학교 이태지역연구센터 교수)
- 토론 1 — 고재남(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 토론 2 — 제성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 팀장)

제68차 전문가포럼 | 2014년 5월 21일 |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아, 청일전쟁 당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 국가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점으로 각축전을 벌였던 당시 정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과 한미동맹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2014년 현재 한반도에서는 어떤 역학관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청일전쟁의 교훈을 살려 주체적인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패널리스트들과 청중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주 제 — 역사로부터의 교훈 : 청일전쟁 120주년,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는
- 사 회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발표 1 — 1894년과 2014년 :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구조와 변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발표 2 — 청일전쟁과 한반도 : 역사적 교훈에서 찾는 한국의 외교·안보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토론 1 —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토론 2 — 이동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69차 전문가포럼 | 2014년 9월 18일 |

일 본 아베 정권이 우익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침략전쟁을 미화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영토 갈등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69차 전문가포럼에서는 최근 일본의 일련의 행보와 대북 접근에 숨은 의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상 최악으로 평가 받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김대중 정부의 한일 외교, 폴란드의 탈냉전기 외교정책, 러시아와 일본 간의 외교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패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한편으로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주 제** ——— **일본 아베정권의 행보와 북일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사 회** ——— 고경빈(평화재단 이사)
- **발표 1** ——— 아베정권 대아시아 정책방향과 한일관계의 진로
양기호(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 **발표 2** ——— 북일 관계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양현(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 **토론 1** ———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토론 2** ———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제70차 전문가포럼 | 2014년 10월 29일 |

‘국 경없는 기자회견’이 발표한 ‘2014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180개국 가운데 북한은 179위, 남한은 57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남한의 경우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바라는 한편 남한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통일 준비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남한 정부가 인권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인권 시각에서 따져보고자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5.18과 6월 민주항쟁 등이 아시아 지역 민주화의 모델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에 대해 정리했고,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에 대해 짚었다. 그리고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남북한 인권이 하향평준화된 상황에서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제안을 했다. 북한인권의 열악할 실상과,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개선되어 온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기도 오가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이루어져 열띤 모습을 보였다.

- **주 제** ———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준비**
- **사 회**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발표 1** ——— 대한민국은 감시사회인가?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감시와 통제로 지탱하는 체제
이규창(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발표 3** ——— 분단과 평화, 그리고 인권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2** ———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 **토론 3** ——— 이원웅(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포지엄

2014년 평화재단 심포지엄 | 2014년 6월 19일 |

2014년, 연구원에서는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은 커녕 우리에게 사실상 통일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진단, 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하는 2014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의 발표1을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담론이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통일인식을 통한 '성찰적 근대화'가 제시하는 대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담당한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대박론'으로 통일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으니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실천성과 추진력이 확보되는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했다. 통일영향평가란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중장기 국가정책, 외국과의 조약이나 주요 협정 등을 추진할 때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여 그 사업이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는 장치다.

토론에 나선 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영향평가 제안은 종래 국내 학술회의나 실무자, 전문가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신선한 제안이라며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고 전문가 그룹의 요구가 높아진다면 정부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통일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제도화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화 지표라는 점을 짚으면서, 완전통일단계를 1국체인 국민국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통일'에 기초하면 통일영향평가가 보다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 **주 제** ———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 **일 시** ——— 2014년 6월 19일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 회**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표 1** ———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성찰적 평가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 통일을 위한 준비 : '통일영향평가'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1** ———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토론 2** ———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 **토론 3** ——— 김도태(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4**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5**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 2014년 11월 18일 |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열렸다. 기존에 예상했던 350명의 인원을 훌쩍 뛰어 넘어 4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자리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첫 번째 발표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평화재단 교육원 원장인 조민 박사가 맡아 남북이 함께 하고 각 지방자체의 분권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통일코리아의 모델로 '한반도 연방제'를 제안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통일로 가는 길 : 북한의 통일 준비'를 주제로,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일로 가는 길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최후의 방법은 통일이다. 시민들의 각성이 분명해야 하고 이것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주위에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바람직한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의 닫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 주 제 — 새로운 백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 일 시 — 2014년 11월 18일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 회 — 최상용(전 주일대사, 서울신학대학 석좌교수)
- 발표 1 — 통일로 가는 길 :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1 —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2 — 성경룡(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2 — 통일로 가는 길 : 북한의 통일 준비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토론 3 —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4 —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표 3 — 통일로 가는 길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 이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5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6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평화연구원

현안진단

2014년 총 22편의 현안진단 칼럼이 발행되었다. 현안진단은 4명의 패널들이 격주로 모여 당시 현안을 정리하고 논의를 거친 뒤 순서대로 원고를 작성하며, 웹메일을 통해 발행된다.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5·24조치 4년... 남북 이젠 대화로”

이것은 얼마 전 <중앙일보>가 1면 톱 기사를 통해 내건 기획기사의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세력 각축이 한층 격렬해지고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현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연초부터 “통일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연속으로 기획 기사를 내보내 통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갑작스레 통일이 가져다 줄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데에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처형 사건으로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어 조기 붕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기획기사는 현재의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남북관계의 중요성에서 출발하면서도 시간적인 절박성이나 접근방식의 면에서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갈래의 논조는 현 단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자	주 제
90	14. 01. 08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91	14. 01. 24	남(南)의 '통일대박'과 북(北)의 중대제안, 고장난명(孤掌難鳴)인가
92	14. 02. 10	'적극적 평화' 없이는 '통일대박'도 없다
93	14. 02. 25	남북관계의 적극 개선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94	14. 03. 12	평화, 교류·협력과 결합될 때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길이 열린다
95	14. 03. 31	통일은 현재진행형, 지금의 행동이 통일의 양상을 결정한다
96	14. 04. 18	'통일대박'에 앞서 '안보쪽박'을 막아야 한다
97	14. 04. 28	한·미 정상회담과 대한민국號의 항로
98	14. 05. 14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99	14. 05. 27	외면당하는 구조 요청 : 북한 억류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남북관계의 골든타임
100	14. 06. 25	한국외교의 재설계, '자기주도외교'를 펼쳐나가자
101	14. 07. 07	전략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 시진핑 주석의 방한
102	14. 07. 14	남북관계를 더 이상 '조건'의 볼모로 삼지 말자
103	14. 08. 23	남북 고위급접촉과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
104	14. 09. 02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105	14. 09. 16	북한의 '특단조치' 바라다보는 응색한 대북정책
106	14. 10. 03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07	14. 10. 20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2차 고위급접촉에서 길을 찾아야
108	14. 11. 03	유해·무독·무익의 전단 논란
109	14. 11. 21	작전통제권 무기 연기, 멀어지는 통일대박
110	14. 12. 04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하는가?
111	14. 12. 19	광복 70주년 전야, 통일파업과 우리의 자화상

전문가모임

2014년 평화연구원에서는 6개 커리큘럼의 전문가 모임을 운영했다. 북한 현실 모
임에서는 북한 내부의 소식과 동향을 비롯해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사실적이고 세밀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각 시기별 현안을 공유하고 분석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북한 인권 모임에서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실태와 처우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외
부 전문가의 발표 자리를 마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상과 처우, 그리고 범죄 실태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듣는 시간도 가졌다.

평화 체제 모임은 한반도에 분단 체제에서 벗어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
시켜야 할 사항들과 외교전략, 국제협력 방안 등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태도에
대해 토론하는 등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한 연구를 이어갔다.

또한 평화법제 모임을 통해 북한인권법과 북한의 입법이론 등을 탐구하고 입법 체제와
쟁점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정치·북한·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신진 전문가
들이 모여 남북 및 한국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토의하는 신진 전문가 모임
도 진행되었다.

통일플랫폼 모임은 통일로 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개설된 모임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2015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개설해 남북관계와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
회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전문가 모임

- 북한 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약, 북한현실)
-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약, 북한인권)
-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전문가모임(약, 평화체제)
- 통일을 위한 평화 법제 연구 전문가모임(약, 평화법제)
- 신진 전문가모임(약, 신진전문가)

일시	모임(약칭)	내용
14. 01. 05	신진전문가	·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 한국경제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14. 02. 17	신진전문가	·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 유럽다자안보협력기구의 경험과 교훈
14. 02. 26	평화체제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새로운 해법 모색
14. 03. 10	평화체제	· 2014년 평화법제 연구 모임 운영 방향
14. 03. 13	신진전문가	·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안보협력의 시사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14. 03. 26	북한현실	·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 전망
14. 04. 07	평화체제	· 박근혜 정부 통일구상의 실현 방안
14. 04. 21	평화체제	·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신변안전, 상사분쟁 해결절차
14. 04. 24	북한현실	· 북핵 4차 핵실험 전망과 정세
14. 05. 19	평화체제	· 복합재난, 난민, 강제이주
14. 05. 19	평화법제	·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4. 05. 23	북한현실	· 한미일 군사협정 강화 문제와 최근 동향
14. 05. 23	통일플랫폼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요
14. 05. 30	통일플랫폼	·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간의 역할
14. 06. 13	통일플랫폼	· 공동 인식 총론
14. 06. 17	평화체제	· 중국의 민족주의
14. 07. 08	북한현실	· 한미일 군사협정 강화 문제와 최근 동향
14. 07. 15	평화체제	· 미국의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 사례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미얀마 사례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함의
14. 08. 22	북한현실	· 상반기 북한 경제 상황
14. 08. 28	평화체제	· 제 2세계
14. 09. 03	북한인권	· 2014 북한인권 개선
14. 09. 30	신진전문가	· The Future Results of British Rule in India
14. 10. 13	평화체제	· 거대한 체스판
14. 11. 07	통일플랫폼	· 북한 이탈주민 교육 실태
14. 11. 17	평화체제	· 지정학과 해양세력 이론
14. 12. 12	통일플랫폼	· 2015년 운영 계획 논의
14. 12. 22	평화체제	· 중국의 해권에 관한 논의

2. 평화교육원

바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한국사회의 현주소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4년 한해는 그간의 발전이 마치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 마냥 내면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평화교육원은 이런 한국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그룹을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개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스펙쌓기와 성공을 향해 달리는 현대인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길과 명품인생의 철학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철학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분단을 고착화시킨 근현대사의 조명을 통해 시대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현대역사의 잔유물인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 중용의 철학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 및 경제정의실현, 나아가 세계 경제흐름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세부방안 등에 대해 다루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함께 고민하였다.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적 판단하에 어떻게 정치혁신이 가능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아카데미를 통해 정치 혁신방안과 청년과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히 생활민주주의 정착을 큰 과제로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남남갈등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사회적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어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열린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코리아 건설을 위해 각 아카데미의 과정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통일이 가능한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청년봉사자들과 새터민들이 함께 통일 교육에 참여하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4년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아카데미를 참여한 졸업생들의 사회적 실천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졸업생 중 일부가 통일소모임 『콩닥콩닥』을 만들어서 세월호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한 통일활동을 펼쳐나갔다.

● 제 10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3월 20일 - 6월 12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2주
- 참가자 : 전체 41명 등록, 37명 수료

평화리더십아카데미

2014년은 세월호 사고로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던 해였다.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북이 통일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가진 역사발전의 주체가 필요하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민족의 통일과 인류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리더그룹을 양성하고자 개설되었다. 2009년 9월 3일 평화리더십아카데미 1기를 개강하여 현재 11기까지 꾸준히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사회 곳곳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03. 20(목)	입학식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가는 길
	03. 21(금) ~ 03. 22(토)	입학워크숍	• 리더십특강 1 :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관 • 리더십특강 2 : 행복한 삶을 꿈꾼다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2주	03. 27(목)	정의	• 중용 민주주의를 말한다 : 정의는 중용이다 최상용(전 주일대사,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3주	04. 03(목)	인문학	• 김홍신 작가가 말하는 시대와 역사 김홍신(작가, 전 국회의원)
4주	04. 10(목)	경제	•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 전망 최윤식(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래기술경영연구원장)
5주	04. 17(목)	복지	• 복지실현을 위한 조세제도 방안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6주	04. 24(목)	사회통합	• 갈등의 한국사회, 통합의 리더십으로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7주	05. 08(목)	미래전망	• 2014, 다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윤여준(전 환경부장관)
8주	05. 15(목)	국제정세	• G2시대, 동아시아 공동체 새로운 미래 송만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9주	05. 22(목)	생태	• 기후변화의 위기를 뛰어넘는 녹색문명 정희성(환경과 문명 대표)
	05. 24(토) ~ 05. 25(일)	경주워크숍	• 신라의 삼국통일로 본 통일코리아의 전망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10주	05. 29(목)	지방자치	• 지방자치시대 20년, 지자체 가야 할 길 황주홍(국회의원, 전 강진군수)
11주	06. 05(목)	라운드테이블	• 변화를 꿈꾸는 상상력을 펼쳐라!
12주	06. 12(목)	수료식	•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2. 평화교육원

III. 2014 사업별 활동보고서

● 제11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 12월 11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3주
- 참가자 : 전체 39명 등록, 38명 수료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09. 18(목)	입학식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가는 길
	09. 19(금) ~ 09. 20(토)	입학워크숍	• 리더십특강 1 :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관 • 리더십특강 2 :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과 과제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준(전 환경부장관)
2주	09. 25(목)	정의	• 민생 : 우리 시대 최우선 순위의 정의 최상용(전 주일대사,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3주	10. 11(토) ~ 10. 12(일)	경주워크숍	• 신라의 삼국통일로 본 통일코리아의 전망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4주	10. 16(목)	국제정세	• 동아시아의 평화로 가는 길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5주	10. 17(목)	민주주의	• 생활 속에서 꽃피우는 민주주의 안희정(충남도지사)
6주	10. 23(목)	북한	• 변화하는 북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주	10. 30(목)	삶, 행복	• 진정한 행복, 명품인생으로 살기 김홍신(작가, 전 국회의원)
8주	11. 06(목)	미래비전	• 침몰하는 대한민국, 다시 희망을 말하다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9주	11. 13(목)	법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박은정(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10주	11. 20(목)	경제	• 경제 공공성 회복과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하여 김상조(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11주	11. 27(목)	특별좌담	• '정치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정치학 박사)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주	12. 04(목)	라운드테이블	• 변화를 꿈꾸는 상상력을 펼쳐라!
13주	12. 11(목)	수료식	•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 제6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4월 18일 - 6월 20일, 매주 금요일 14:00, 총 9주
- 참가자 : 전체 26명 등록, 24명 수료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여성리더십아카데미는 여성들의 사회의식을 높이고, 연대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나와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를 주제로 20-50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삶의 전환기를 보내며 다른 삶을 모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2014년 7기까지 진행되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여성리더십아카데미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왜곡시키는지 공부하는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다. 각 세대가 전환기의 불투명성과 불안감 갖고 있지만 여성리더십아카데미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여성들이 한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된 '나'로 인식전환을 하며 세대와 여성 그리고 사회와 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04. 18(금) ~ 04. 19(토)	입학특강	• 생명에 대한 예의 우희중(서울대 수의학교수)
		입학워크숍	• 2014, 시대를 말하다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주	04. 25(금)	사회통합	• 갈등의 한국사회, 통합의 리더십으로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3주	05. 02(금)	경 제	• 한국경제 제대로 보기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4주	05. 09(금)	복 지	• 내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주	05. 16(금)	역 사	• 병자호란을 통해 본 한반도의 선택 한명기(명지대 사학과 교수)
	05. 17(토) ~ 05. 18(일)	경주워크숍	• 신라의 삼국통일로 본 통일코리아의 전망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6주	05. 23(금)	언 론	• 언론, 언론인을 말하다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7주	05. 30(금)	사회진단	• '어떻게 할 것인가' 유시민(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
8주	06. 13(금)	문 화	• 박정자, 무대에서 바라보다 박정자(연극배우)
9주	06. 20(금)	수료특강	• 나의 운명사용 설명서 고미숙(고전평론가)

2. 평화교육원

III. 2014 사업별 활동보고서

● 제7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10월 10일 - 12월 12일, 매주 금요일 14:00, 총 10주
- 참가자 : 전체 15명 등록, 9명 수료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10. 10(금)	입학특강	•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우희중(서울대 교수)
	10. 11(토) ~ 10. 12(일)	경주워크숍	• 신라의 삼국통일로 본 통일코리아의 전망 법륜스님(평화재단이사장)
2주	10. 17(금)	사회	• 세상 물정의 사회학 노명우(아주대 사회학 교수)
3주	10. 24(금)	동북아 정세	• 격랑의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주	10. 31(금)	세계평화	• 분쟁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길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중심으로 홍미정(단국대 중동학과 교수)
5주	11. 07(금)	문화	• 대중 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정여울(작가, 평론가)
6주	11. 14(금)	경제	• 한국 경제 제대로 보기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7주	11. 21(금)	환경	• 지속가능한 삶이란 하승수(녹색당 대표)
8주	11. 28(금)	법. 정치	• 다시 정치를 말하다 노회찬(전 국회의원)
9주	12. 05(금)	여성과 삶	•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고미숙(고전 평론가)
10주	12. 12(금)	1부 라운드테이블 2부 수료식	• 여성리더십아카데미에서 찾는 나의 길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행복의 열쇠로서 ‘개인적 성공’이 한계에 이른 지금, ‘성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공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는 2030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청년리더십을 창조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여는 청년리더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에서 청춘은 재발견된다.

“요즘 같은 시절에 이런 청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모였죠?” 청년리더십아카데미 강의에 오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배움과 참여의 열정을 지닌 청년이 있음에 놀라며 많이 하는 말씀이다. 대한민국 청춘은 현재 불행하다. 모두가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청년들은 이곳에서 숨겨왔던 내 청춘의 가치를 알게 된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에서 청년은 시대와의 동행을 선택한다.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이곳에서 내 생각과 고민을 나눈다. 친구가 생겼다. 이 고민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 알게 되고, 고민했던 지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지게 된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로 사회 혁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청년리더십아카데미에서도 갈등과 대립의 시선과 주관적인 의견을 넘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천하고 참여하여 이 사회를 좀 더 이로운 쪽으로 바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청춘 액션을 진행했다. 특히, 통일 문제를 역사기행, DMZ 평화기행, 새터민 청년들과의 대담을 통해 좀 더 현실감있게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홍구 교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읽어라”라는 강의에서 우리 역사가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며, 우리 근현대사에서 시민들의 힘은 미약했지만, 천천히 진보하고 있는 과정이며, 결국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청년들이 잘 쓰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유진 위원장님의 강의로 “환경=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저소비가 해결책이며, 에너지 생산의 자립,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 녹색도시로의 전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게 되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 행복이 이타의 시작이라는 김제동님의 강연은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같은 선상에서 “사람을 고귀하게 생각하는가?”라는 홍기빈 소장님의 메시지는 내 문제, 이 사회 문제와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렬한 지침이 되었다.

3차 산업혁명 시기,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작은 힘을 모이나갈 때 행복한 대한민국의 청년리더가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2. 평화교육원

III. 2014 사업별 활동보고서

● 제7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4월 1일~6월 1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30. 11주
- 참가자 : 68명 등록, 58명 수료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04. 01(화)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입학특강	•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김대규(청년리더십아카데미 담임, 변호사)
2주	04. 08(화)	역사	• 역사의 흐름을 읽어라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04. 11(금) ~ 04. 13(일)	입학워크숍	• 통일신라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3주	04. 15(화)	창의	•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 홍세화('말과 활' 발행인)
4주	04. 22(화)	정치	• 한국사회의 희망을 말하다! 윤여준(전 환경부장관)
5주	04. 29(화)	환경	•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 이유진(녹색당 공동위원장)
6주	05. 10(토)	현장학습	• DMZ 평화기행 이시우(평화운동가)
7주	05. 13(화)	경제	• 경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8주	05. 20(화)	사회통합	•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05. 24(토) ~ 05. 25(일)	졸업워크숍	• 통일 한반도의 희망 찾기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실천하는 청년 - 청년 활동가 초청 대담 강성훈, 조정훈, 서선미
		•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청춘 ACTION PLAN	
9주	05. 27(화)	사회	• 청춘, 어떻게 살 것인가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0주	06. 03(화)	특강	• 새 시대의 자기혁명 박경철(작가)
11주	06. 10(화)	수료식	•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졸업 과제(청춘 ACTION) 발표

2. 평화교육원

III. 2014 사업별 활동보고서

● 제8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

- 일 시 : 2014년 10월 7일~12월 9일. 매주 화요일. 저녁 7:30. 11주
- 참가자 : 67명 등록. 51명 수료



일 정		주제 및 강사	
1주	10. 07(화)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입학특강	•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김대규(청년리더십아카데미 담임, 변호사)
	10. 10(금) ~ 10. 12(일)	입학워크숍	• 통일신라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2주	10. 14(화)	창의	•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 홍세화('말과 활' 발행인)
3주	10. 21(화)	언론	•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상호(고발전문기자)
4주	10. 28(화)	역사	• 역사의 흐름을 읽어라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11. 01(토)	현장학습	• 강화 근현대사 및 DMZ 평화기행 이시우(평화운동가)
5주	11. 04(화)	청춘	• 새 시대의 자기혁명 박경철(작가)
6주	11. 11(화)	정치	• 한국 정치진단 & 청년 정치참여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7주	11. 22(토) ~ 11. 23(일)	졸업워크숍	• 우리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김제동(방송인)
			• 윗동네 청년들과의 대담 새터민 청년 3명
			•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청춘 ACTION PLAN 공유
8주	11. 25(화)	환경	•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 이유진(녹색당 공동위원장)
9주	12. 02(토)	경제/복지	• 경제의 공공성 회복과 복지사회의 전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0주	12. 09(화)	수료식	•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졸업 과제(청춘 ACTION) 발표

열린아카데미

청춘 콘서트 이후 하나의 열풍이 되었던 ‘힐링’ 과 ‘멘토’ 가 점차 사람들에게 식상한 단어가 되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위로와, 개인의 방향성을 책임질 수 없는 멘토의 한계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교육이 아닌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 필요하다. 그래서 2014년 열린아카데미는 사회의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모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소통의 광장”을 격월로 1회씩 마련하였다.

● 제17기 열린아카데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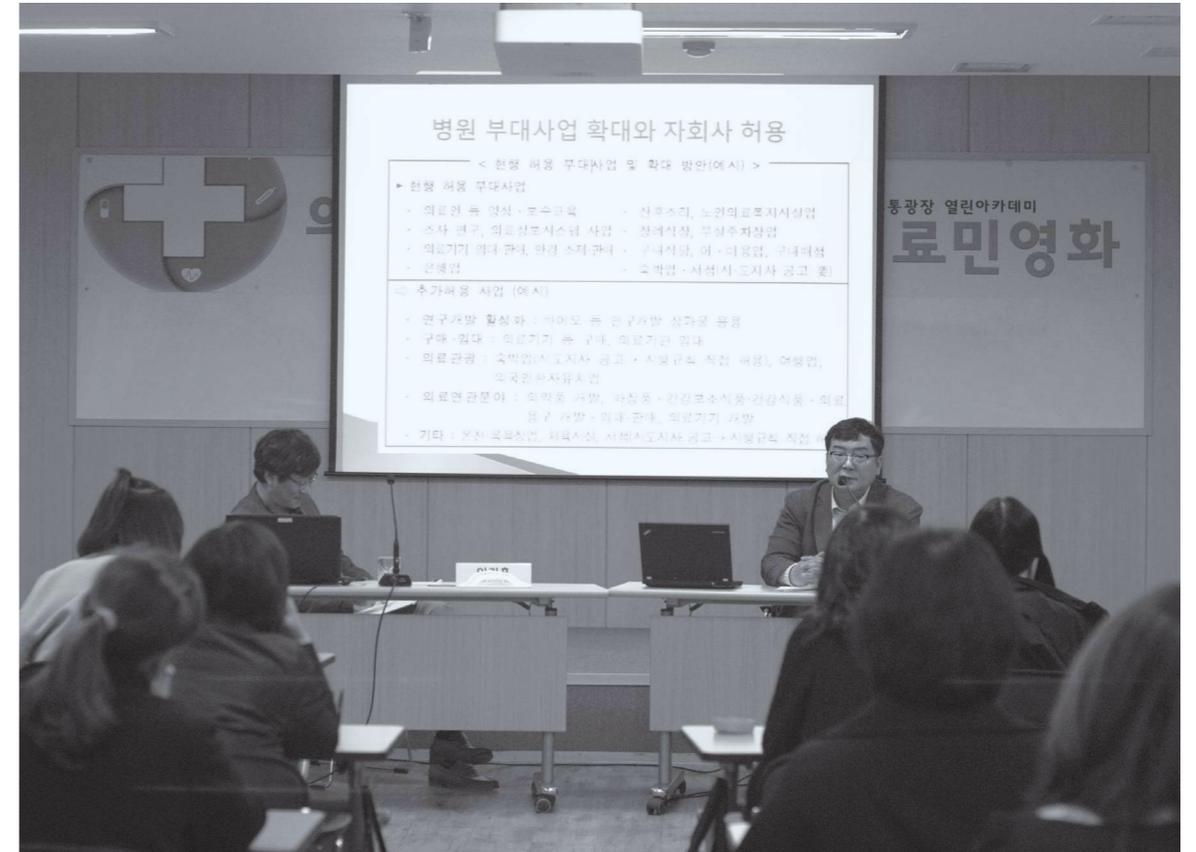
<의료선진화 정책 vs 의료민영화, 집중 진단!>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원격진료제도 도입,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설립’ 등이 제안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졌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함께 의료까지 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경제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흐름이 형성되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의료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의 다른 견해를 함께 모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여 열린아카데미를 마련하게 되었다.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에서 이해하기 보다 두가지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 일 시 :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참가자 : 50명
- 강사진 : 이기호(인제대 보건대학원 원장, 새누리당 건강특위 자문위원)
우석균(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18기 열린아카데미 ●

〈대한민국, 근대의 리더십〉

세월호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야당 지도자들이 모두 제대로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극대화,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한국사회가 어떤 리더십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역사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자 하였다.

현재 분단된 남북한이 태동하게 된 근대의 시작기, 즉 일제 시대 및 해방기 남북한의 지도자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고 통일로 가는 방향도 함께 그려보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 일 시 : 2014년 6월 24일~7월 8일, 오후 7시 30분, 3강
- 참가자 : 60명

일 정	주제 및 강사
06. 24(화)	• 분단과 통일의 길목에서 - 이승만 vs 김구 김명섭(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07. 01(화)	• 다시 '중도변혁의 길을 묻는다' - 여운형 and 안재홍 김기협(전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07. 08(화)	• 한반도 근대화의 길 - 김일성 vs 박정희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9기 열린아카데미 ●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로」 시리즈 I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꽃피우는 평화

2014년 7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넘쳐났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보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분쟁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들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참가자 : 40명
- 강사진 : 홍미정(단국대학교 중동학과 교수, 「울지마 팔레스타인」저자)



● 제20기 열린아카데미 ●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로」 시리즈 II

• 세계의 무관심 에볼라, 재앙이 되다

2014년 세계적 이슈 중 하나였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재앙으로까지 떠올랐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인권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제3세계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에볼라 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격리되면서 생기는 인권문제는 큰 우려를 자아냈다. 에볼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바이러스가 왜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참가자 : 30명
- 강사진 : 우희종(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기획강좌

● 정치아카데미 ● 지방자치제 사용설명서

지방자치제 실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제의 현 주소와 함께 생활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 통일코리아의 운영모델로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2014년 6월 실행된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2030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었다.

- 일 시 : 2014년 5월 12일 - 6월 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총5강
- 참가자 :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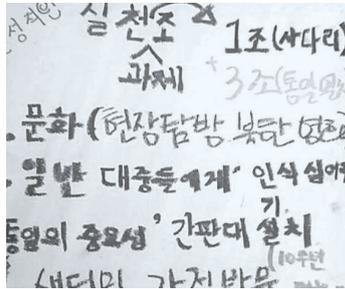
강의	일정	세부내용
1강	05. 12(월)	•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의 길로! 김두관(전 경남도지사)
2강	05. 19(월)	• 풀뿌리 민주주의 I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3강	05. 26(월)	• 풀뿌리 민주주의 II -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4강	06. 02(월)	• (토크) D-2, 2014 각 정당 지방선거 해부! 유창선(정치평론가)
	06. 04(수)	• (맥톡) 유쾌한 투표 뒤풀이! 수다 파티
5강	06. 09(월)	•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 길을 묻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 새로운백년아카데미 ● “남북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통일 미래“

시대적 과제로 통일코리아 건설이 떠오른 가운데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남북청년들, 특히 청년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망, 북한 및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였으며, 통일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강좌를 통해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배움+실천의 장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방식을 강의 외에 역사탐방, 새터민과의 교류, 문화적 접근 등 청년들에 맞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활력을 주었으며, 새터민과 함께 한 시간들은 통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일 시 : 2014년 5월 12일 - 6월 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총8강
- 참가자 : 40명

강의	일정	세부내용
1주	10. 15(수)	• (여는 마당) 무한상상의 나라로 “기차타고 대륙으로의 여행~” 모두 함께
2주	10. 22(수)	• (대담)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꿈꾸다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25(토)	• (현장학습) 분단의 아픔과 미래가 공존하는 땅 “DMZ 역사탐방” 이시우(평화활동가)
3주	10. 29(수)	• 통일코리아의 국가상 및 체제변환의 과제 성경룡(한남대학교 교수)
4주	11. 05(수)	• 또 한번의 도약, 통일경제를 말하다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5주	11. 12(수)	• 변화하는 북한, 더불어 살아가기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6주	11. 19(수)	• 한·중·일 격동하는 동아시아, 평화의 날개를 달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7주	11. 24(월)	• 한반도 화해상생의 통일로! -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process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8주	12. 03(수)	• (마무리 마당) 청년들이 함께 그리는 액션! 모두 함께
	12. 06(토)	• (통일포차) 남북한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모두 함께

3. 평화운동

새해벽두부터 '통일대박'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통일논의는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별다른 진전없이 구두선에 머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는 가속화되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의 추진이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구조화하고 통일을 멀게 하여,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미정상회담과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회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민통합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통합선언 1년,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한편,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295명의 사망자와 끝내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비롯, 희생자 가족들을 포함하여 온 국민 모두가 비통함과 참담함으로 가슴아픈 시간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세속화와 몰신주의에 몰든 종교인으로서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새로운백년을 여는 통일의 상상력”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자 했다. 특히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과 대립이 가속화되면서는 누구보다 가장 아팠을 희생자가족들이 갈등과 대립의 주역처럼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은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알아나가고 자신의 삶을 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배워나갔다. <새로운 백년청년학교>와 활동가들부터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인식을 넓혀간 <새로운 백년 아카데미>, 사회적 이슈를 찾아가는 <현장탐방활동>, 상고사와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고, 통일된 독일사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통일미래를 그려보는 [독일역사탐방] 등을 통해 역사와 통일, 미래, 공동체의 가치와 참여의 계기를 꾸준히 만들어갔다.

새로운 백년 재발전, 시대와의 동행”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청년 대학생정도회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새로운백년 청년포럼
2014 청년 캠프
법륜스님과 김제동이 함께하는

“나”
새로운 백년 재발전, 시대와의 동행”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



청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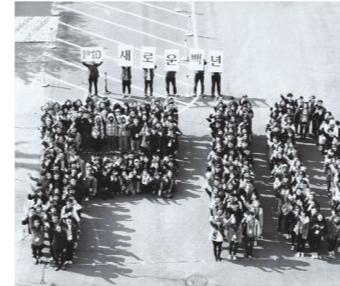
‘**깨**어있는, 함께하는, 실천하는 청년공동체’를 지향하며 청년들의 인생관, 사회관, 시대관, 실천론의 4가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23개 지역에서 400여명(3기,4기)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 제3기 청년학교 ●

- 일 시 : 2014년 3월 13일(목) ~ 6월 21일(일) (주1회, 15주)
- 장 소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울산, 부산, 창원 총 9지역, 10개의 청년학교
- 수 료 : 119명

구 분	서울주간	서울저녁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입학정원	9	51	11	27	21	11
수료정원	3	38	8	14	12	6

구 분	청주	울산	부산	창원	전국
입학정원	7	24	26	10	197
수료정원	3	14	12	9	119



일정		커리큘럼	
1강	3월 2주	입학식	• 입학특강/자기소개
-	-	첫걸음	• 인생멘토링, 인생나누기워크숍 "친해지길 바래"
2강	3월 3주	인생관 1	• 「방향해도 괜찮아」그룹세미나
3강	3월 4주	인생관 2	• 「스님의 주례사」그룹세미나
4강	4월 1주	인생관 3	• 「인생수업」그룹세미나
5강	4월 2주	특강 1	• 마음공부특강 "행복한 인생"
6강	4월 3주	시대관 1	• 「새로운백년」역사편
7강	4월 25일-27일	디딤돌	• 경주역사기행
8강	5월 1주	시대관 2	• 「새로운백년」(미래편)
9강	5월 2주	시대관 3	• 통일특강
10강	5월 3주	사회관 1	• 「쟁점을 파하다」복지다큐세미나
11강	5월 4주	특강 2	• 내 삶을 바꾼 환경·평화·국제개발이야기
-	5월 17일-18일	현장탐방	• 5.18 광주 현장탐방
12강	5월 5주	사회관 2	• 「쟁점을 파하다」환경다큐세미나
책거리	6월 2주	책거리	• 수료에세이/선물나눔
수료	6.21	수료워크숍	• 수료특강 및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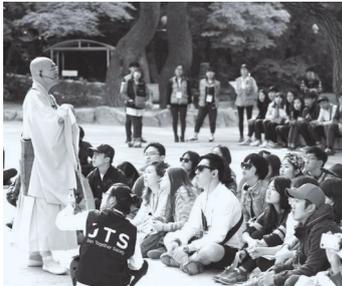


3. 평화운동

● 제4기 청년학교 ●

- 일 시 : 2014년 9월 19일 ~ 12월 13일. (주1회, 11주)
- 장 소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총 11개 지역, 23개의 청년학교
- 수 료 : 총 280명 수료

구 분	서울					경기인천			
	서초	마포	성동	도봉	강원	수원	분당	일산	인천
입학정원	76	23	20	16	11	18	11	13	14
수료정원	36	6	14	11	7	12	8	5	5
구 분	대구울산경북					부산창원			
	대구중구	대구만촌	울산북구	울산남구	경주	경산	부산서면	부산동래	창원
입학정원	33	12	6	33	9	9	39	33	23
수료정원	22	7	4	21	9	4	23	32	18
구 분	대전충청광주전라					전국			
	대전둔산	대전대흥	광주	청주	전주	23개			
입학정원	44	10	27	7	13	491			
수료정원	23	5	10	3	6	280			



일정		커리큘럼	
입학	9월 3주	입학식	• 입학특강/자기소개
	9월 20일-21일	첫걸음워크숍	• 인생나누기 워크숍 "친해지길 바래"
1강	9월 4주	인생관 1	• 「방향해도 괜찮아」그룹세미나
2강	10월 2주	인생관 2	• 법륜스님 영상특강 "청춘멘토링"
3강	10월 3주	인생관 3	• 「인생수업」그룹세미나
4강	10월 4주	인생특강	• 행복한인생을 위한 청춘멘토링
5강	10월 5주	사회관 1	• 「새로운백년」역사편
6강	11월 01일-02일	현장수업	• 경주역사탐방
7강	11월 2주	사회관 2	• 물 이야기(환경실천)
8강	11월 3주	사회관 3	• 「새로운백년」미래편
9강	11월 4주	사회특강	• 내 삶을 바꾼 환경·평화·국제개발이야기
10강	11월 45	책거리	• 수료에세이/선물나눔
수료	12월 13일-14일	수료식	• 청춘캠프 참여 & 수료증 수여식



3. 평화운동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현장탐방활동

‘교실에서 현장으로!’를 모토로 진행된 현장탐방 활동은 청년들이 사회현안과 이슈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갈등의 현황과 원인을 공부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9회 진행되는 가운데 400여명의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현장탐방활동 ●

- 일 시 : 2014년 4월 5일 - 11월 22일 (월 1~2회 진행)
- 참가자 : 연인원 400여명 (평균 45명)

차	일 정	주 제	장 소	참가(명)	안내(활동가)	이슈특강
1차	수도권 04.05(토)	환경 내성천 청년은 나무를 심는다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	47명	지울스님	
2차	전국 05.17(토) ~ 05.18(일)	역사 5.18 동학 청년, 오월의 남도를 건다	광주 고창 정읍	90명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소장, 통일외병) 박용식(통일의병) 오용태(통일의병)	
3차	수도권 06. 22(일)	사회 세월호	안산 강남역	18명	세월호 유족	
4차	전국 07. 12(토) ~ 07. 13(일)	환경 밀양 밀양 할배, 할매와 함께하는 노임팩트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70명	밀양대책위	
5차	수도권 08. 24(토)	통일 새터민 통일요리교실	수원	21명	좋은벗들 전은정(요리선생님)	
6차	수도권 09. 27(토)	사회 민영화 Of the Money By the Money For the Money	서울	21명	박흥수(철도의 눈물 저자) 정재수(보건의료노조)	
7차	전국 10. 03(금) ~ 10. 05(일)	역사 이순신 리더십 이순신의 길을 찾아서	남해안 일대	90명	최광수(교수) 오태양 이승현(활동가)	
8차	수도권 (확대) 10. 18(토)	통일 DMZ 파주 DMZ 평화기행	파주	37명	이시우(평화운동가)	
9차	수도권 11. 22(토)	대안 청년 주거 나는 민달팽이, 내 집이 없네	검암	18명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대표) 임정아, 노숙경 (우리동네사람들 멤버)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해외탐방활동

2기 동북아역사누리길

- 일 정 : 2014년 7월 1일 ~ 7월 6일 (5박 6일 일정)
- 참가자수 : 40여명
- 프로그램 내용 : 고구려 · 발해 · 백두산천지 유적답사 및 역사 · 통일 강의와 토론

2기 독일통일리더십탐방

- 일 정 : 2014년 10월 18일 ~ 10월 26일 (8박 10일 일정)
- 참가자수 : 20여명
- 방문지역 : 독일 6개 도시 (프랑크푸르트, 본,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포츠담, 베를린)
- 프로그램 :
 - 1) 독일인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리 3인 (콘라드아데나워)(빌리브란트) [메르켈] 리더십탐방
 - 2) 통일과 화해의 역사현장 방문
베를린장벽, 브란덴부르크문, 포츠담 회담현장, 동독시민물결 발화지 니콜라이 교회 화해와 평화의 상징 프라우엔교회, 동독비밀경찰 슈타지박물관, 국회의사당 등
 - 3) 독일을 이끄는 리더십 인터뷰 및 워크숍
사민당 복지정책,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통일워크숍, 동독 시민사회활동가, 히든챔피언 기업CEO
 - 4) 색깔있는 독일문화 체험
퀸텐대성당, 쾰른대성당, 쾰데파우스트 배경 '아우어바흐켈러', 드레스덴 엘베강 달빛 산책,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등



3. 평화운동

청년콜로키움

- 일 시 : 2014년 11월 11일 ~ 2014년 12월 10일
- 장 소 :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창원, 울산, 광주
- 진행 내용



대전				
1강	11. 11(화)	미래정치	청년이 묻고 미래정치가 답하다	
2강	11. 18(화)	환경과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그 비밀의 문을 열다	이유진
3강	11. 25(화)	통일 리더십	통일독일 25년 세계의 리더가 되다	김택환
4강	12. 02(화)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대구				
1강	11. 11(화)	미래정치	청년이 묻고 미래정치가 답하다	김윤
2강	11. 18(화)	환경과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그 비밀의 문을 열다	하승수
3강	11. 25(화)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부산				
1강	11. 13(목)	환경과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그 비밀의 문을 열다	서토덕
2강	11. 20(목)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3강	11. 27(목)	미래정치	청년이 묻고 미래정치가 답하다	
4강	12. 04(목)	통일 리더십	통일독일 25년 세계의 리더가 되다	김택환

서울				
1강	12. 01(월)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2강	12. 10(수)	통일 리더십	통일독일 25년 세계의 리더가 되다	김택환

창원				
1강	11. 22(토)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울산				
1강	11. 24(월)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광주				
1강	12. 05(금)	복지국가	행복 1등 국가 덴마크를 탐방하다	오연호



평화통일 네트워크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공공성은 무엇인지,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종교인조차 물신숭배 사회의 일원이 되어버린 모습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복원, 새로운 사회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었다. 유가족을 위로하는 국민적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 모두의 상처와 새로운 희생을 막는 길이 아닌가 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 일 시 : 2014. 7. 8 (화) 오후 2:00 - 5:30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1층 성당(서울 중구 정동 17)
- 주 최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시 간		내 용
01:30	접수	진행 사회 : 김대선 원불교 교무(평양교구장)
02:00	개회 및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애국가제창
02:05	여는 인사말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02:10	기조연설	박남수 교령(천도교 교령)
사회 :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02:20	발표 1(유가족)	세월호를 만든 사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02:35	발표 2(아카데미)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우인철(청년허브)
02:50	발표 3(종교인)	세월호가 보여준 한국사회, 다시 근본으로 김흥진(신부, 천주교 쑥고개성당 주임신부)
03:05	발표 4(사회인사)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공공성 회복으로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3:20	휴식	
03:40	발표 5(전문가1)	전관예우와 '관피아' 폐해방지, 국가혁신의 출발 진재구(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3:55	발표 6(전문가2)	안전한 사회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원경(전 소방방재청장)
04:10	발표 7(전문가3)	국가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류희인(전 NSC 위기관리비서관)
04:25	발표 8(정치인)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
04:55	종합토론	살고 싶은 나라, 안전한 사회, 희망있는 사회 만들기
05:25	닫는 말씀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05:30	폐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 국민통합회의)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는 2013년 연말부터 꾸준히 모임을 진행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을 우선 과제로,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지난 2013년 6월 19일에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국민통합선언을 확인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민통합선언 1년 :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

- 일 시 : 2014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 국민통합회의)

시 간	내 용	
09:30	접수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5	여는 인사말	박종화(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사회: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10:15-10:40	발표 1	• 평화체제전환과 핵문제 해결 유호열(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토론 1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0:40-11:05	발표 2	•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토론 2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11:05-11:30	발표 3	• 남북 간 민간경제교류협력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 3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1:30-12: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2:00-12:10	마무리 말씀 :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	
12:10	폐회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1) 전체 일정 및 내용

- 기 간 : 2014년 03월 28일 - 06월 20일
- 강연 횟수 : 총 40회 • 참가자 수 : 총 30,804명 • 총 자원봉사자 수 : 2,534명

1)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일반 현황					참가현황			봉사자
순서	날짜	요일	시간	행사지역	좌석수	참가자	참가율	봉사자
1	03. 28	금	10:30	강원원주시 상지대민주관	324	462	143%	50
2	03. 28	금	19:00	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청다산홀	400	540	135%	80
3	03. 31	월	14:00	전남무안군 전남도청김대중실	700	430	61%	45
4	03. 31	월	19:00	광주남구 남구문예회관	402	650	162%	50
5	04. 04	금	10:30	서울노원구 노원구민회관	748	1,300	174%	90
6	04. 04	금	19:00	서울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830	1,100	133%	88
7	04. 07	월	10:30	경북김천 문화예술회관	530	349	66%	46
8	04. 07	월	19:00	길벗 여의도사학연금회관				
9	04. 11	금	10:30	충남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	826	736	89%	61
10	04. 11	금	19:30	대전서구 대전시청대강당	680	1,190	175%	67
11	04. 14	월	19:00	울산동구 동구청강당	400	702	176%	50
12	04. 18	금	10:30	경기용인시 용인시청에이스홀	607	590	97%	70
13	04. 18	금	19:00	경기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	420	520	124%	98
14	04. 21	월	19:00	경북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530	520	98%	46
15	04. 22	화	19:00	경북포항시 포항시청대강당	596	876	147%	65
16	04. 25	금	10:30	서울성북구 성북구민회관	767	925	121%	85

17	04. 25	금	19:00	서울구로구 구로구민회관	540	632	117%	70
18	04. 28	월	10:30	경남창원시 늘푸른전당	648	780	120%	63
19	04. 28	월	19:00	부산금정구 부산대학교학생회관	690	745	108%	54
20	05. 12	월	10:30	경남진주 파기대100주년 기념관	670	793	118%	40
21	05. 12	월	19:00	대구수성구 수성대대강당	603	1,200	199%	72
22	05. 16	금	10:30	제주 한라대학한라아트홀	831	745	90%	43
23	05. 19	월	10:30	부산사하 동주대학교	500	693	139%	75
24	05. 19	월	19:00	경남양산 문화예술회관	826	1,107	134%	57
25	05. 23	금	10:30	서울은평 은평문화예술회관	701	1,075	153%	74
26	05. 23	금	19:00	서울동대문 동대문구민회관	548	785	143%	75
27	05. 26	월	10:30	전남순천 문화건강센터	430	630	147%	41
28	05. 26	월	19:00	전북전주 전북대학술문화관	600	600	100%	67
29	05. 30	금	10:30	경기부천 부천시청	529	897	170%	46
30	05. 30	금	19:00	경기수원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500	700	140%	90
31	06. 02	월	10:30	대구서구 서구문화회관	454	720	159%	65
32	06. 02	월	19:00	부산수영구 KBS부산홀	2,874	2,220	77%	125
33	06. 09	월	10:30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350	622	178%	50
34	06. 09	월	19:00	경남창원시 마산MBC경남홀	1,120	800	71%	73
35	06. 13	금	10:30	강원춘천시 춘천교육문화관	574	450	78%	52
36	06. 13	금	19:00	강원강릉시 강릉단오문화관	453	740	163%	50
37	06. 16	월	10:30	경북영주시 영주시민회관	490	680	138%	46
38	06. 16	월	19:00	충북충주시 충주학생회관	725	770	106%	60
39	06. 20	금	10:30	인천연수구 연수구청대강당	394	850	215%	70
40	06. 20	금	19:00	경기김포 김포아트홀	503	680	135%	85

4. 평화재단 10주년 기념행사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1:30~5:3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 평화재단 평화



10주년 특별기획대담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안팎으로 새로운 위기 국면에 처했습니다. 안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내파(內破) 상태에 봉착했습니다. 밖으로는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남북 관계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추락했습니다. 탐욕, 물신숭배, 부정·부패, 국가의 무능과 책임 방기 등이 초래한 참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풀이 하느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은 공동체의 윤리와 논리를 회복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단국가 상태로는



더 이상 미래를 열어 갈 수 없습니다.

평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고뇌하면서 여러분과 손잡고 통일로 가는 ‘길찾기’에 나서고자 <새로운 한국, 통일코리아 길을 열다>를 큰 주제로 하여 모두 9회에 걸친 기획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전과 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화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이어 「통일코리아, 21세기 세계 속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21세기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좌표와 한민족의 위상을 점검하고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통일코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대박’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 경제의 활로로 개척하는 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을 일구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통일로 한국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또 한 번의 도약, 통일경제를 말하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통일은 ‘평화혁명’입니다. 통일은 ‘이기고 지는’ 승패의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남한체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북한 지역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정치통합 방식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통일국가는 분권과 자치 이념에 기반한 지역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국가 형태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권과 자치, 그리고 통일: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통일코리아의 입장과 시각으로 민족 백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좌절과 시련의 역사를 보듬고 남과 북 분단시대의 역사를 냉엄하게 재평가하여 민족사의 원형을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통일코리아가 보는 민족의 백년사」를 정리해보는 장을 열었습니다.



통일의 결정적 열쇠는 북한 주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통일에 합의해야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통일, 북한 민심을 사로잡아라!」를 대담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은 문명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세계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에 「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대화 마당을 열었습니다.

비핵평화통일! 평화는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 목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구도 위에서 한반도 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안보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중 간 패권경쟁에 겹쳐 한·중·일 3국 간 정치와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해 한중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기रो에 선 동아시아: 새로운 문명의 축인가, 낡은 문명의 충돌인가?」를 놓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해보고자 했습니다.

* [대담 내용은 총 9회에 걸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블로그(<http://blog.naver.com/peace1kor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1 호 ————— 세월호 전과 후,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봉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여준(나를 살리는 숲 상임이사),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2 호 ————— 통일코리아, 21세기 세계 속의 길을 묻는다
최상용(전 주일대사, 서울신학대학 석좌교수),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3 호 ————— 또 한 번의 도약, 통일경제를 말하다
이상만(중앙대학교 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 손병두(전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4 호 ————— 분권과 자치, 그리고 통일 : '한반도 다(多)연방제 통일' 구상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경룡(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5 호 ————— 통일코리아가 보는 민족의 100년사
김형기(평화재단 연구원 원장), 이이화(역사학자), 박태균(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6 호 ————— 통일, 북한 민심을 얻어라!
고경빈(평화재단 이사),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도일(북한 출신전문가)
- 7 호 ————— 통일, 북한도 변해야 한다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고경빈(평화재단 이사),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8 호 ————— 통일로 가는 평화안보 정책
김형기(평화재단 연구원 원장), 이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 9 호 ————— 기로에 선 동아시아, 새로운 문명의 축인가 낡은 문명의 충돌인가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섭(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재(김대중 아카데미 원장),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재단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다. “내 손 가득 통일 씨앗”이란 메시지로 진행된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류길재 통일부장관,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이 축사자로 참석해주셨다. 또한 지난 10년간 평화재단에 도움을 주신 종교인, 사회원로, 정치인, 연예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내빈 90여명과 사회인사 100여명을 포함해 평화연구원의 전문가가 40여명, 평화교육원의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청년리더십아카데미 수강생 및 졸업생 140여명, 청년포럼의 청년활동가, 통일의병, 후원회원 4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통일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이 날 행사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손을 잡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터’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마무리 되어 감동을 더했다.



- 일 시 : 2014년 11월 18일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프로그램 내용

1부 만찬

- 정겨운 밥상
- 축사 - 정의화 국회의장
- 류길재 통일부 장관

2부 기념식

- 타고식
- 개회
- 10주년 기념영상
- 환영인사 및 내빈소개
- 축하공연 - 통일하모니(청년포럼)
- 축사 -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 홍사덕(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축하영상 - 평화재단에게 띄우는 러브레터
- 열돌 축하 떡케익 커팅식
- 축하공연 - 가수 김장훈 '행복의 나라로'
- 새로운 백년을 향한 약속 - 법륜스님
- 축하공연 - 소프라노 이지영 '그리운 금강산'
- 함께부르는 통일 노래 '터'(통일의병 노래패 '학수고대' 및 참가자 전원)



재단의 약속

새로운 100년 통일코리아를 여는 평화재단의 약속

현 재 한반도의 7천만 겨레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남북의 체제경쟁은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70여년간 지속된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고, 냉전적 사고는 고착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파행, 국론 분열, 사회통제의 강화, 개인의 인권침해 등은 남북한 사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병폐입니다. 전 세계가 국경도 허물어지며 지역연합,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남북은 뚜렷한 국가발전전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정세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 중의 각축과 그에 따른 주변 4대 강국의 국익 경쟁, 군사적 세력 확장은 물론, 전통적 외교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가 4대강국의 국익을 위한 각축장이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한국이 남한이 주변 4강으로부터 국익을 지켜내기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구나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은 경제적 의존을 넘어, 앞으로 정치군사적으로까지 예측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분단은 남북의 국익을 침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끊임없이 한반도에 외세의 개입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통일이야말로 7천만 겨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중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국제정세에 맞서는 통일 외교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개혁도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나가려는 기존 정치권력을 재편하여, 민족 공동체를 통합해내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도 남북이 군비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절대적 빈곤층과 남한의 사회적 약자층에 투자하는 복지 국가로 한걸음 다가서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급급한 북한은 물론, 남한도 기존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통일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통일정책은 7천만 민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에서만 나올 수 있기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통일과 함께 국가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평화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비전임을 재천명하면서, 통일코리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는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속한 성장 주어나 국가주의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사적 개념에 머물렀던 국가의 안보기능을 정치적 자유신장,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 경제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정책과 구체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다양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개인은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문화가 만연한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대립, 갈등, 부정부패, 권력 남용 등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통일이 한국 사회가 지닌 모순을 북한 사회에 확산하는 결과이어서는 안됩니다. 사회 구성원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선거와 시정 참여를 통해 분권과 지방자치를 몸소 익혀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도 뜻뜻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통일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 교육과 민주 시민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시민사회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점검하고 대안적 사회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를 통합시키면서 통일코리아의 사회운영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자층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복지사회로 전환되어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혁신되어야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방면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평화재단은 '국민통합위원회'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임의 실무지원을 지속해 나가며, 시민사회의 통일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재단이 통일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지 이제 열 돌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큰 과업에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국제 평화 단체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5.재정보고
6.함께하는 사람들



5.재정보고

수입

계정과목	2014년 결산	내역
후원금	741,684,236	후원금
교육수강료	127,346,215	리더십아카데미, 열리아카데미
참가비	44,794,000	청년학교 참가비
기타수입	31,039,089	이자, 인세, 잡이익 등
수입계	944,863,540	

(단위:원)

지출

계정과목	2014년 결산	내역
목적 사업비 ①	교육수익사업	102,666,108 리더십아카데미(평화,여성,청년), 열리아카데미, 기획강좌
	연구사업	102,929,331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전문가모임, 정책대담, 현안진단
	평화운동사업	80,625,746 희망세상만들기, 청년학교, 평화운동연대사업, 종교인모임 등
	해외정책교류	7,163,100 해외정책교류사업
	홍보비	19,477,590 홈페이지, 후원회원관리, 연례보고서제작 등
소계	312,861,875	
경상비 ②	운영비	289,117,207 임차료, 건물관리비, 일반운영비
소계	289,117,207	
지출계 ①+②	601,979,082	
이월금 ③	342,884,458	
지출합계(①+②+③)	944,863,540	

(단위:원)

6.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서영훈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오현 | 백담사 화주

지도위원

김명혁 |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백낙청 | 서울대 명예교수
문규현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윤여준 |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도법 |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색신을 위한 결사추진 본부장
스티븐 린튼 |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

이사

김홍신 | 소설가, 중앙선관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조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경빈 | 전)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조성식 | 포스코에너지(주) 고문
추원서 |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이사장

법륜 | 정토회 지도법사

감사

김기진 | 사단법인 JTS 대표,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여영학 |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총장

노옥재 | 평화재단 사무총장

연구위원

•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조성렬(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김경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신정화(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문기(세종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승열(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김영수(최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길정우(19대 국회의원),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도향(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고경빈(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김인성(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임순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 통일을 위한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박정원(최장, 국민대 법대 교수), 김성훈(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서진(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안재석(법무법인 나은 변호사), 여영학(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신진 전문가모임

이영훈(최장,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영(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상숙(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규성(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이나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위원)

자원봉사자

• 사무국

노옥재, 백혜은, 최정연, 김경희, 최말순, 이승용, 이미은, 이영재, 구하연, 김기숙, 윤영화, 이광희, 주윤선, 김나영, 이미경, 김막순, 박영민, 김정선, 서민정, 심애남, 홍민지, 김태영

• 연구원

이새롬, 박정태, 조수현, 권이현, 박경미, 박지윤, 정진선, 황연희, 최효정, 최시은, 박시현, 정유진

• 교육원

박영숙, 박영숙(사진작가), 강명희, 강성원, 공혜경, 김영주, 김민녀, 김미정, 김지연, 김현화, 문희수, 박은혜, 박지현, 서보나, 서은실, 송경아, 신상우, 신선영, 신아영, 신예슬, 안명애, 안성진, 안여옥, 우정현, 유미경, 유정심, 윤보라, 이광희, 이수정, 임윤석, 임은희, 정인미, 전지해, 조성아, 진미란

• 청년포럼

오태양, 정은실, 최보미, 김소희, 최지선, 이동하, 우인철, 박수정, 유영민, 김정윤, 강서희, 김태형, 전은영, 권미정, 이승현, 손주희, 이주현, 정선경, 민현기, 이성윤, 박지연, 이현정, 김동현, 윤은진, 오상권, 최유라, 박민하, 이해연, 박상욱, 성은영, 박경내, 이용수, 백영호, 김동환, 박호신, 최양호, 류희정, 조아라, 권종률, 노숙경, 조경미, 김수진, 정민권, 전유진, 김선주, 황유경, 박은진, 김근욱, 정기영, 김석원, 김민경, 홍승현, 박왕선, 조세현, 전은희, 서록경, 윤보람, 안소은, 김유경, 구남명, 임다정, 이다연, 유애림, 배경문, 엄지태, 우정석

평화재단 후원회원 되기

나의 참여는

평화연구를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합니다.

다양한 평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평화문화를 확산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로 되돌아옵니다.

온라인 이용신청 | [평화재단 홈페이지 후원회원 가입](#)

www.peacefoundation.or.kr

후원계좌 : 국민은행 484201 - 01 - 154897 재단법인 평화재단

평화나눔 회원은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포럼, 심포지엄,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재단 후원회원이 되시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